

일상성의 함몰 거부하는 자유로운 정신의 편력

신이현 지음 「숨어있는 좋은 방」

시간이 나오면 그 책을 가장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몇줄로 요약된 광고를 볼 수 있다. 반 윤리적이니 파행적이니 등의 단어가 들어가는 이 책의 광고문구는 내 호기심을 끌지 못했다. 대중의 싸구려 정서를 자극하는, 그렇고 그런 소설일 것이라는 선입견과 일탈적인 삶을 굳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방어심리 등이 작용한 탓이었다. 난 상식적인 스토리를 지독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고정관념을 설득력 있게 깨는 책일수록 좋아한다. 그래서 이 소설을 '엄숙주의에 반하는 자유로운 정신'이란 또다른 평에서 한번 밑지는 썬치고 읽어보자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윤이금은 분명 파행적인 존재다. 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덕이나 기존 질서 쪽에서 본다면 말이다. 그러나 책을 다 읽고 난 지금 그녀가 나쁜 짓을 한 것이라 여겨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 그녀는 진정 남자를 사랑할 줄 아는 여자다. 남자에게 수동적으로 사랑을 원하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치장한다거나 애교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녀가 도리어 남자를 사랑해주므로 지배 혹은 새로운 인간형, 여성형의 창조라고 느껴졌다.

그녀는 남들이 소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에 시시함을 느끼고 반대로 남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에서 안식을 느낀다. 결혼은 그러한 그녀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에게 불평하거나 참으며 기다리지도 않는다. 자유를 부르짖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자유 그 자체이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라 할 만큼 행동이 거침없고 돌발적인데 그것이 더없이 솔직해 보이고 거기서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떠올리게 만든다. 또한 우리에게 내재돼 있고 유혹이 되는 자유에 대한 실천, 겁이 없는 대담함을 통해 대리만족을 경험하기도 한다.

분명 방종하게 보이는 그녀의 행동은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규정되는 것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책임이라고 명명하는 건 누구인가, 소유관계에서의 책임이란 것은 자신을 배제시키고 타인을 위한(가족이라 할지라도) 종속적 삶을 요구한다. 그것을 벗어나려 하는 자에게 응징이 주어진다. 따라서 일차적 관계가 주는 갈등, 불화로 결국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여진 역할에 순응함으로 충돌이 아닌 최소한의 안정을 택한다. 그러나 윤이금은 그럴 수 없다.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라는 안정된 가정, 시부모의 권위를 쉽사리 배반하고 뛰쳐나가는 행동을 보인다. 계산된 행복보다는 현재의 느낌에 행동을 맡겨 버리는 것이다. 그런 그녀는 분명 비현실적인 존재로 보인다. 그래서일까, 그녀에게 증오나 적대감을 보일 만한 대상에게도 넓은 의미에서의 우정이 가능하다. 그중 아버지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싸울 필요도,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도 없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더 넓게 진정한 관계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혼의 의미를 볼 수 있다.

기존의 소설들이 대부분 주인공을 첨단 직종의 종사자나 지적인 인물로 배치했다면 이 소설에선 밑바닥 삶을 사는 가정이 배경이다. 그러면서도 신세대적 감성이 물씬 풍겨나는 건 왜일까. 파행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것이 적극성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가볍게 느껴지는 대화, 심각하거나 관념적이지 않은 단순한 감정처리 등에서 오는 것 아닌가 싶다. 남의 이목과 회생을 숭배하던 기존 관념을 비웃는 윤이금을 반사회적이라고 볼 것이나, 주체적이라고 볼 것이나에서 이 책은 이중적 해석의 논란이 있을 것 같다. 나는 후자로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윤이금은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이라 여겨진다. 그녀는 우리의 일상의 중독성을 일깨우고 있다.

질서정연한 일률적인 삶의 형태가 아니라 개개인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개성이 배려되는 사회라면 이 소설은 그런 사회를 촉구하는 도전장 같은 글이다. 이 소설이 신선하게 느껴진다는 것도 그만큼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개인의 차이가 공동체적 자아보다 하위개념으로 경시되었던 분위기에 대한 반동적 현상이 아닐까 싶다.

김영춘

경기도 안양시 안양 5동 707-342

「문화생활 소프트」

최근 모 기획회사가 전국 5대도시 성인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미활동의 경험은 영화 67%, 등산 61%, 사진촬영 50%, 박물관 관광 36%, 연극 20%, 음악회 26% 등을 순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접하는 신문과 책, 프로그래밍, 트레킹과 같은 스포츠와 정보화 사회의 필수품인 PC통신이 뒤를 잇고 있

다. 이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보통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쉽게 접하고 있는 취미활동의 주요 갈래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취미활동이 늘어나고 생활의 중심이 직장에서 여가활동 강화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의 의미도 단순한 취미, 오락수준을 넘어 문화생활이란 한단계 높은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인들은 여행을 가더라도 문화유적을 감상하며, 연극, 영화, 비디오를 보더라도 작품의 질과 미적 완성도에 최대한 관심을 가진다. 또 사진을 찍더라도 전문 사진작가와 별 차이가 없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낸다.

도서출판 '좋은세상'이 펴낸 「문화생활 소프트」는 이같은 현실에 기초하여 일반인들이 널리 향유하고 있는 10가지 문화생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생각을 모았다. 내용 또한 낱을 들을 완전히 벗어나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실생활에 유익한 것들로 꾸며져 있다.

책읽기에서는 생산적인 독서방법을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미술은 '쉽고 재미있는 미술찾기'란 제목으로 주변에 보아 넘기기 쉬운 유적들에서부터 출발하여 독자로 하여금 웃음이 스며나오도록 하는 저자의 필력이 돋보인다.

비디오는 "선택에서 감상까지"란 말 그대로 비디오의 많은 부분을 압축해놓고 있으며 심지어 애인과는 어떤 영화를 보아야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연극, 영화 역시 탄실한 경력을 기초로 한 저자들의 글쓰기가 부러울 정도다.

스포츠편에서는 직접 하는 스포츠와 보는 스포츠를 구분하여 스포츠에 대한 접근통로를 열어주고 있다. 사진 또한 간단한 역사에서 사진찍기를 개괄하고 좋은 사진은 어떻게 생산되는가하는 해답을 찾고 있다.

신문편은 신문의 이면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신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여 신선함이 눈에 띄고, 「70일간의 음악여행」의 저자인 이장직 선생이 쓴 음악은 생활 곳곳에 있는 음악의 갈래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활용법을 다루고 있어 매우 특이하다. 마지막으로 PC통신은 PC의 세계를 무한히 확대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는, 문화 또는 문화생활이 특정계층의 전유물인 시대가 아니다. 문화생활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실제로 상당한 사람들이 문화생활의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을 향유하고

있다. 혹여 문화생활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화생활 소프트」를 권하고 싶다. 특히 직장 여성들이나 주부들에게는 문화생활이란 개념을 아주 친숙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엄경영

서울시 용산구 청파2가 5-1번지

「나의 시의 빛과 그늘」

얼마 전인가 시인 황동규의 새 시집을 소개하는 어느 신문 평에서 그를 가리켜 "계간 '문학과 지성'의 간판 시인"이라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시인 황동규란 이렇듯 단순한 한 사람의 시인이라기 보다는 70년대 이래 한국 문학의 한 축을 지켜온 '문학과 지성 시인선'을 대표하는 시인인 것이다. 즉 그의 시들은 '문학과 지성 시인선'으로 들어가는 통과외레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시집이 시인선의 첫째 권이라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그 통과 외레가 만만하지 않다. 그의 시들은 대부분 긴데, 그 시어 하나 하나에 의미를 두고 읽어내려 한다면 독자들은 쉽게 지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그의 시를 두고 흔히 지식인적이라고 하는 것과는 어느 정도는 관련을 갖고 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시인이 자신의 시에 대해 쓴 「나의 시의 빛과 그늘」(중앙일보사)은 그의 시세계로 들어가는 나침반같은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시인 스스로도 이름지 않았던 시를 쓴 한 인간의 '시세계 탐방기'이자 '자술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는 이 책에서 시인의 등단 초기 시절을, 군대 시절을, 대학 시절과 최근의 모습까지를 엿볼 수 있고, 그 삶의 과정에서 잉태되어 써여진 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그의 초기 시부터 등장하는 '눈'이라는 시어의 의미가 점차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독자는 명확히 볼 수 있다. 거기다 산문임에도 마치 산문시를 읽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문체는 이 책이 왜 서점의 시 코너에 꽂혀 있는지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런데 시인은 이 글에서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 거리를 만든다. 마치 시인이 자신이 쓴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 보다는 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같은 느

문예출판사에서 펴낸 인문·사회과학 책들!

꿈을 주는 것이다. 물론 시들을 쓸 때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 시인이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달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간격을 독자들이 시세계를 묵묵히 지켜보는 일, 그것이 이 책이 독자에게 주는 큰 짐이자, 또한 즐거움일 것이다.

매워주길 바라는 의도가 있는 듯 싶다.

즉 시인은 이미 죽거나 시를 쓰지 않는 시인이 아니라 현재도 시를 쓰는 현재 진행형의 시인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인은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하나의 숙제를 남겨주는 셈이다. 시인이 과거에 쓴 시들을 다시 꺼내보고, 앞으로 계속될 그의

강영훈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90-42

「四川의 善人」

연극을 좋아하고 독문학을 전공한 내가 브레히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희곡 「사천의 선인」을 읽으면서부터이다. 처음 이 희곡을 대했을 때는 “도대체 작가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었다.

「四川의 善人」에서 무대가 되고 있는 곳은 중국의 ‘사천’이라는 도시로서 ‘인간이 인간에 의해 착취당하는 모든 곳’을 비유적으로 대표하는 지방이다. 이 극에서는 사천을 무대로 일종의 심리가 행해지는데 이 심리의 결과도 결국 사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천의 사회질서, 즉 인간착취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계에 해당될 수 있다. 주인공 센테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선한 인간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다”라는 계명을 갖고 강립한 세상을 도와 숙소를 제공한 유일한 선인이었다.

세 신이 그녀를 보고 선인을 찾았다고 기뻐하자, 센테는 이를 부인하고 자신의 생계만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한다. 그녀가 “모든 것이 이토록 비싼데 제가 어떻게 선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착하게 살고 싶지만 현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한탄한다. 이렇게 시작된 극은 센테가 과연 착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준다. 담배가게를 연 센테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기대로 가득찬다. 그러나 그녀가 빈민구제의 천사

가 되기도 전에 가난한 이웃들이 가게를 점령한다. 사건이 이렇게 진행됨으로써 센테는 이웃 사랑의 윤리적 요구와 현실적으로 살아남으려는 상업적 본능 속에서 갈등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센테와 쉬타라는 대립적인 두 인물로 분리된다. 쉬타는 사업적인 것을 관리하며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창출해 낸 센테의 또 다른 일면인 것이다. 센테는 상인의 지위에 오르면서 “열 두 사람을 짓밟지 않고는 한 사람의 비참한 자를 도울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센테와 쉬타라는 선악의 인물이 동일 인물로 나타남으로써 살아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브레히트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역할로 실현된 인간분열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인간의 소외를 상징하는 것이다. 인간 누구에게나 선택되고 싶은 욕망과 함께 자신을 위해선 남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마지막 재판 장면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쉬타와 센테, 둘 다 저입니다. 선하면서도 잘 살라고 하신 저번의 명령은 번개처럼 저를 두 쪽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이러한 분열을 통해 얻게 된 양면성은 바로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이다. 브레히트는 이러한 상황이 자본주의에 의해 발달했다고 보며 선을 가능케 하는, 보다 낫게는 선이 필요없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 희곡 작품은 무대위에서는 그 누구도 해결책을 줄 수 없다. 심지어 재판관 역할을 하는 세 신들조차도 심판을 내리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 자신도 이러한 인간이 착취당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선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재판을 뒤로 미루고는 천상의 세계로 올라간다. 이 극의 심판은 바로 작가와 독자(관객) 자신이 하는 것이다.

브레히트는 독자(관객)의 적극성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 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는 사악함을 눈뜨게 하여 인간개조를 하고자 하였다.

정혜영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6-4

철학이란 무엇인가

버트란드 러셀/황문수 譯 4000 원

철학, 어떻게 할 것인가

모리스 앙겔/이종철·나중석 譯 8000 원

철학이야기

윌 듀란트/황문수 譯 8000 원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

윌리엄 사하키안/이종철 譯 6000 원

西洋哲學史

윌리엄 사하키안/권순홍 譯 9000 원

형이상학

W.H. 윌쉬/이한우 譯 6000 원

현대독일철학

뤼디거 부브너/김우철 譯 6000 원

實存哲學

프리츠 하이네만/황문수 譯 6000 원

歷史哲學

윌리엄 드레이/황문수 譯 5000 원

헤겔의 精神現象學 I·II

장 이블리트/이종철 譯 10000 원

哲學과 人文科學

R.J. 앤더슨 外/양성만 譯 8000 원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리처드 E. 팔머/이한우 譯 7000 원

프랑스哲學史

이광래 著 14000 원

하이데거의 實存과 言語

이기상 著 10000 원

하이데거의 存在와 現象

이기상 著 12000 원

하이데거 사유의 길

오토 페겔러/이기상 譯 13000 원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정치철학

이진우 著 12000 원

탈현대의 사회철학

이진우 著 10000 원

아도르노思想

김유동 著 12000 원

사유와 운동

앙리 베르그송/이광래 譯 7000 원

유물변증법

하인츠 김벌레 編/심광현·김경수 譯 8000 원

社會美學

김문환 著 12000 원

美學의 理解

김문환 編 9000 원

마르쿠제 美學思想

허버트 마르쿠제/김문환 編譯 8000 원

루카치 美學思想

파킨슨 編/김대웅 譯 7000 원

마음의 개념

길버트 라일/이한우 譯 10000 원

자유란 무엇인가

모리스 크렌스턴/황문수 譯 4000 원

현상학의 근본문제들

마르틴 하이데거/이기상 譯 15000 원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위르겐 하버마스/이진우 譯 근간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 精神

막스 베버/박성수 譯 6000 원

직업으로서의 학문

막스 베버/이상률 譯 5500 원

歷史의 意味

칼 뢰비트/이한우 譯 7000 원

歷史의 理論

아그네스 헬러/강성호 譯 8000 원

社會科學의 論理

위르겐 하버마스/박성수 譯 8000 원

社會思想史

앨런 스윈자우드/박성수 譯 7000 원

革命的 社會史

잭 골드스톤/이복수·안호영 譯 8000 원

社會理論의 주요쟁점

안소니 기든스/윤병철·박병래 譯 7000 원

해석학적 상상력

조셉 블레이처/이한우 譯 6000 원

儒敎와 道敎

막스 베버/이상률 譯 7000 원

베버와 마르크스

칼 뢰비트/이상률 譯 5000 원

소비의 사회

장 보드리야르/이상률 譯 6000 원

지식인의 종언

리오타르/이현복 譯 5500 원

사회적 상상적 제도

C. 카스토리아디스/양은덕 譯 8000 원

지구는 우리의 조국

에드가 모랭/이재형 譯 6000 원

욕망 이론

자크 라캉/권택영 編 7500 원

자크 라캉

아니카 르메르/이미션 譯 8500 원

페미니즘 이론

J. 도노번/김익두·이월영 譯 8000 원

놀이와 인간

로제 카이와/이상률 譯 8000 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트 니버/이한우 譯 6000 원

패러디 이론

린다 허친/김상구·윤여복 譯 6000 원

文藝出版社

서울시 서대문구 중정로 3가32-11
대표전화 393-5681 / 팩시밀리 393-5685